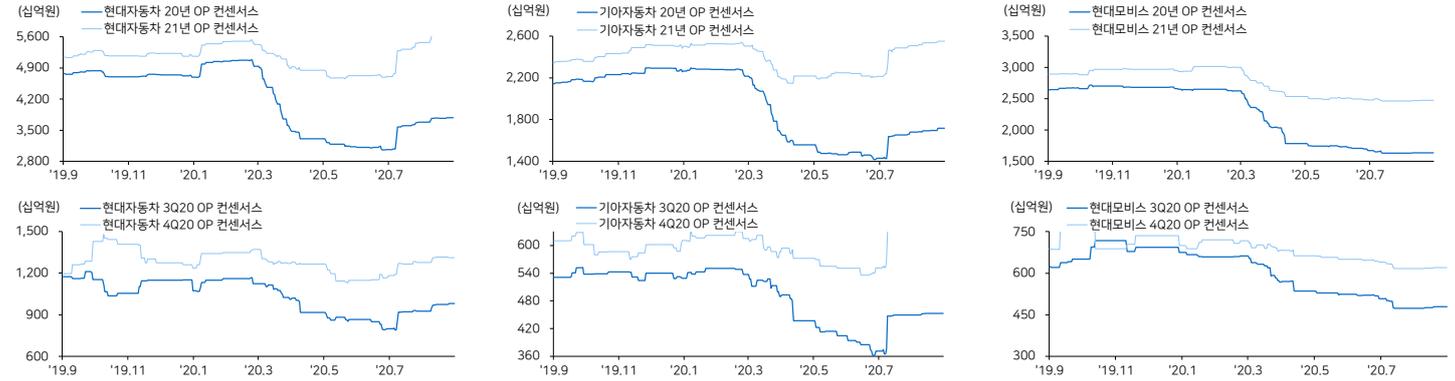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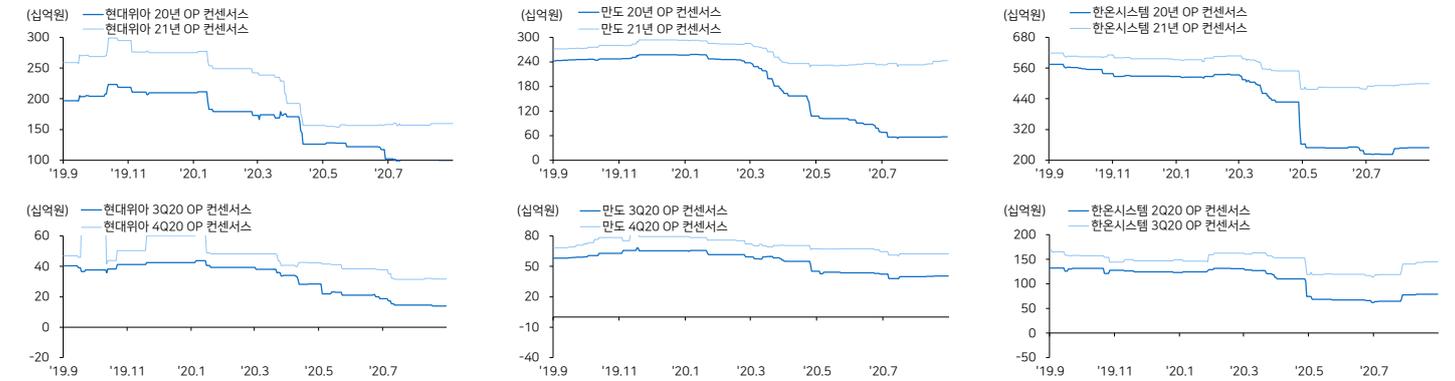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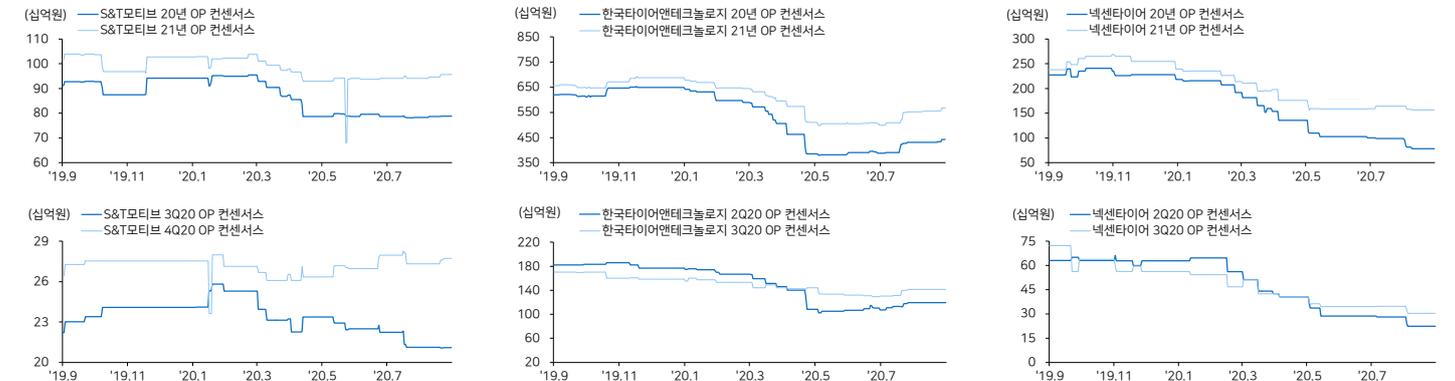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차, 2027년까지 전기차 7종 출시...사업체제 변화 속도 (조선비즈)

기아차가 오는 2027년까지 전용 전기차 모델 7개를 출시하고, 국내외 중전 인프라 업체와 협력을 늘리는 등 전기차 사업 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소차 공장을 방문할 예정인 기아차 전기차 모델 라인업의 스케치 이미지를 공개했다. <https://bit.ly/2H979NO>

현대차 신타크루즈, 신형 투싼 베이스로 개발 (타임라이더)

현대차 신타크루즈가 신형 투싼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윈에 따르면 도심형 픽업트럭인 신타크루즈는 최근 공개된 신형 투싼과 플랫폼을 공유. 신타크루즈는 북미 전략형 모델로 승차감과 공간 활용성이 강조된다. 2021년 출시될 예정이다. <https://bit.ly/2H99mMD>

아우디·폭스바겐 뜨고, 렉서스·토요타 지고...수입차 1만대 '지각변동' (데일리안)

올해 1만대 클럽 달성을 놓고 수입차 브랜드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해 인종 문제·물량 부족으로 주춤했던 아우디·폭스바겐은 공격적인 판매로 올해 부활을 예고하고 있음, 반면 불매운동 여파로 판매가 줄어든 일본차들은 올해 1만대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https://bit.ly/33A0FWL>

GM, 얼티엄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전기차 업체 변신 시도...테슬라 맹추격 하나? (글로벌이코노믹)

GM은 EV구동 시스템과 모터를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을 생산하는 계획을 발표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체 배터리에 대한 GM의 이러한 움직임은 테슬라와 견줄 만한 수직 통합 전기 자동차 사업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https://bit.ly/2Zjvsoo>

현대차, 인도서 비대면으로 축제 특수 잡는다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인도 최대 축제를 앞두고 비대면(언택트:Untact) 판매에 전력투구하고 있음. 올해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인도인들이 지갑을 닫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 <https://bit.ly/35JGNwW>

현대차, 임금 협상 첫 제시안 전달...교섭 가속 (뉴시스)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첫 번째 제시안을 전달하는 등 교섭에 속도가 붙고 있음. 현대차 노사는 16일 오후 울산공장 분관 등 3곳에서 화상 회의 방식으로 11차 교섭을 진행. <https://bit.ly/2RzK1tO>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매달... (중앙일보)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분사,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1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전기 사업 부문을 독립법인으로 의제를 통과시킬 예정. LG화학은 이사회가 끝나는 대로 이를 공식할 계획. <https://bit.ly/3kq10s>

다임러트럭, 10년 내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오토타임즈)

다임러트럭이 미국 자율주행 개발사인 토르코로틱스(Torc Robotics)와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 16일 외신에 따르면 다임러트럭은 지난해 토르코로틱스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트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섬. <https://bit.ly/3l3D3sh>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